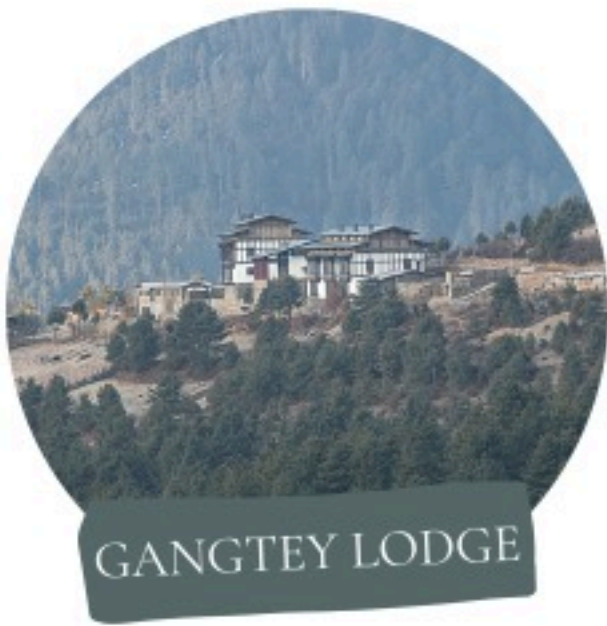


REYA COMMUNICATIONS

MEDIA ALERT



Wednesday 21st May 2025



GQ | APR. 2025



TRAVEL

123

Lime Wood

지난 10여 년 동안 컨트리 하우스 호텔의 개념은 모범과 주디 허드슨이 만든 더 피그 호텔 제인 덕분에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었다. 길치며와 넓은 분화기를 팔리라고, 카면 가든에서 수확한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콩 두 포크 디자인과 캐주얼한 감각을 더해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진짜 시카모 더 피그가 아니라 라임우드였다. 로빈이 2009년에 문을 연 이곳은 자연스러운 매력과 지난 컨트리 하우스 호텔이었는데, 스킨, 객실, 음식은 일부 손님들까지 끌어들이고 매력에 있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충성도 높은 방문객이 이어진다. 객실은 원래 건물의 다락방에 자리한 아늑한 디를 통부터 호수까지 특별한 케빈, 속속 오두막까지 다양하다. 오두막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인테리어와 벽난로, 그리고 푸르른 숲의 전망을 자랑한다. 이번 하우스 스키에서는 숲을 내려다니는 하이드로 물에서 몸을 푼 덩그며 휴식을 취한 후 따뜻한 오일 마사지에 몸을 맡길 수 있고, 호텔 옥상의 허브 정원에서 햇살을 만끽하며 여유롭게 누워 있을 수도 있다. 자연 속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싶다면, 뉴포레스트 국립공원을 가다. 이곳에서는 코렉시아상 제집가인 세로 종조과 함께 산나물, 참나무, 활아를 탐험하여 직접 식재료를 찾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대가 발견한 열매 재료는 메뉴에도 오른다. 이탈리아, 영국 요리를 절묘하게 조합해 미니 아란치니, 밀라네시 리스토, 호텔의 스킨 하우스에서 직접 훈제한 로호 두이트 연어 등 인상적인 메뉴를 낸다. Noo Sara Wines | limewoodhotel.co.uk



Gangtey Lodge

경티 로지에 도착하면 따뜻한 수건, 따뜻한 애플사이다, 깊은 휴식을 주는 5분 마사지, 감동적인 환영 노래가 맞이한다.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노크와 함께 직원들이 조용히 방에 들어와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침대 옆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고 간다. 자리에 돌아오면 베개 위에는 부탄의 전래동화 책이 놓여 있다.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향기로운 베개가 목에 둘러지고, 무릎 위에는 따뜻한 물주머니, 포근한 담요가 어깨를 감싼다. “백산아침을 아인 사람들이 더 럭셔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오너 킨 오마 윈은 말한다. 그녀와 남편 Brett Meltzer는 21년 전 부탄을 처음 방문했고, 2013년 제인 작은 마을 경티 근처에서 로지를 열었다. 전통 농가에서 영감을 받은 이곳은 단 12개의 스위트룸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객실에서 중앙 부탄의 포브지카 계곡이 내려다보인다. 풍경은 계절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한다. 상그러운 초목밭에서 하얀 눈으로 덮였다가 진분홍빛 진달래가 피어나고, 검은목두루미들이 종이를 가르듯 하늘을 가로지른다. 로지는 지역 사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입구에는 인근 사원의 승려가 몇 주에 걸쳐 그린 계곡 지도가 걸려 있다. 손님들은 사람을 방문해 영적인 축복을 받고, 무자 의식을 체험하며, 명상을 할 수도 있다. 부탄의 호텔 시장은 화려한 5성급 리조트가 주를 이루지만, 개성 넘치는 부티크 호텔 경티 로지는 10년이 넘도록 묵묵히 존재로 자리 잡아왔다. 규모는 작지만, 이 공간이 주는 감동과 여운은 특별하다. Anna Prendergast | gangteylodge.com

Gangtey Lodge in GQ Korea

0 items

Upon arrival at **Gangtey Lodge**, you are greeted with a warm towel, warm apple cider, a deeply relaxing 5-minute massage, and a touching welcome song. The next morning, a staff member quietly enters your room with a soft knock, lights a fire in the fireplace, and leaves a cup of warm coffee by your bed. When you return in the evening, a book of Bhutanese folktales is placed on your pillow. Before you even sit down to have breakfast on the terrace, a fragrant pillow is wrapped around your neck, a warm water bottle is placed on your lap, a cozy blanket wraps around your shoulders. “I wanted to create a place where backpackers could have a more luxurious experience,” says owner **Kin Omar Win**. She and her husband, **Brett Meltzer**, first visited Bhutan 21 years ago and opened the lodge near the remote village of Gangti in 2013. Inspired by traditional farmhouses, the lodge has just 12 suites, all of which offer views of central Bhutan. Overlooking the Phobjikha Valley. The landscape changes not only with the seasons but also with the time of day. From a lush green to covered in white snow, to pink azaleas in bloom, and black-necked cranes swooping across the sky like paper. The lodge is deeply connected to the community. At the entrance hangs a map of the valley, drawn over several weeks by a monk from a nearby temple. Guests can visit the temple to receive spiritual blessings, experience puja ceremonies, and meditate. Bhutan’s hotel market is dominated by swanky five-star resorts, but there are also boutique hotels with character, such as Gangtey Lodge. The Lodge has been a unique presence for over 10 years. Although small in size, the impression and lingering feeling this space gives are special.

View Digital Assets [Here](#).

REYA COMMUNICATIONS

View copy-friendly version

Content/work(s) within this Media Report are licensed by Copyright Agency. You must not copy this work without permission. You may only copy or communicate this email and the work(s) within with an appropriate license. Copyright Cision UK Limited, 2025

CISION One